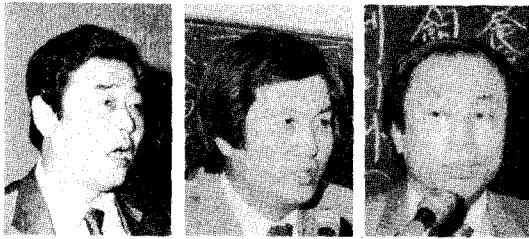


대한양계협회 소식

부화인 세미나 및 간담회개최

- 월 1회 정기모임을 통해 공통관심사 논하기로 결의 -



(이상윤 회장) (권 배 전무) (남궁 선 박사)

올들어 두번째로 전국 부화인 대회가 지난 9월 28일 오후 3시 축산회관회의실(본회지하실)에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먼저 본회 이상윤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중에 있는 양계기반조사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한다」고 전하고 「부화인 여러분은 내일의 도약을 위해 더욱 결속하는데 한분도 빠짐없이 동참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부화인의 화합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본회 황인옥 전무는 협회 주요업무보고에서 GNE백신의 도입공급, 계군혈청검사사업은 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파이프하우스 철거령에 따른 대책건의가 효과가 있어 내년 3월까지 연기될 전망이며, GP센타설치 등 우리나라 양계산업에 일대 전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사료가격 전망세미나에서 사료협회의 권 배 전무는 앞으로 사료가격은 10월 이후 약 18%~20% 인상요인이 있을 것 같고 이것은 금년 미국 옥수수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50%, 대두가 30% 감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인상요인을 분석했다.

이어 가축위생연구소 남궁 선 계역과장은 종계방역대책에 관한 세미나에서 닭 질병 발생현황 및 문제점, 국내주요질병의 년도별 검색현황, 종계와 관련되는 질병의 검색현황, 계군혈청검사사업운영의 기대효과 및 성적을 분석했다.

이어서 부화인 간담회에서는 진지하고 폭넓



△ 전국 부화인 대회가 열리고 있다

은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양계산업안정화를 위한 기금조성으로 우리의 산업을 자주적으로 안정시키고 초생추 판매에 있어서 덤핑행위를 삼가해서 병아리 제값 받기 운동을 전개하며,

△부화인은 자주 모임을 통해 공동 관심사를 의논하고 서로 협조하여 난관을 타개하는데 힘을 합치자고 입을 모았다.

닭인공수정 강습회 개최

-오는 11월 중순 선착순 20명-

중계사육이 케이지로 변환에 따라 인공수정 기술을 널리 보급해 수정율 향상과 종계능력향상으로 수익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본회는 오는 11월 중순 닭인공수정 강습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론과 실습으로 2박3일간 진행될 이번 세미나는 닭의 번식생리, 인공수정의 이론과 실제, 인공수정법규, 종계의 방역, 정액채취회석 주입, 실습 등을 교육하며 비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선착순 20명을 선발해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통보할 예정이다.

제 3 차 이사회 개최

- 10월 12일 오후에 -

본회 제 3 차 이사회가 오는 10월 12일(수) 오후 2시 본회 지하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회업무현황보고에 이어 신가입회원 승인 및 지부승인, 추경예산(안)심의, AAAP 지원에 대한 건의, 기타 사항 등이 심의될 예정이다.

9월 정기회장단회의 개최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장단회의가 지

난 9월 7일 오후 5시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주요업무보고와 무허가건물양성화 등 대정부건의 사항보고에 이어 부의된 안전심의에서 내년도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논의와 검정소건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각농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농장백신프로그램 작성, 부화업자대회를 9월 28일(수) 개최하고, 이사회개최를 오는 10월 12일(수)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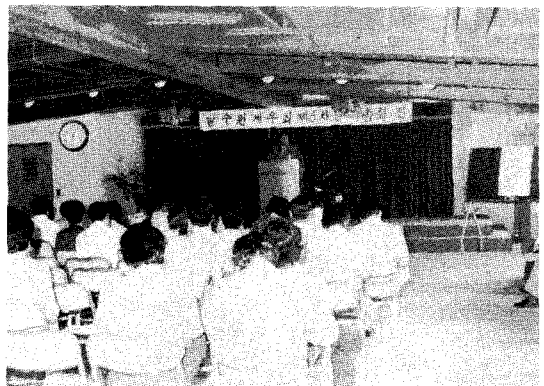
수원분회 정기총회 개최

- 회장에 김순조씨 피선 -

수원분회(수원계우회) 제 6 차 정기총회가 지난 9월 3일(토) 농협수원단위조합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임진관부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참석자 전원 은 비명에 간 KAL기 승객에 대한 묵념과 소련만행을 규탄하는 의식을 가졌다. 연혁보고와 강석부회장 인사와 감사패 증정, 강희구 서울 경기양계협동조합 조합장 격려사, 감사보고로 이어진 회의는 82~83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83~84년도 사업승인 및 예산승인, 임원선출 순으로 진행되었다.

1978년 8월 14일 창립한 동회는 회원의 친



선도모, 정보교환, 사업기반확립 등 그간의 많은 발전을 해 온 바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신임원을 선출한 바 있다.

회 장 : 김순조

부회장 : 송상정(산란계), 이규영(육계).

이 사 : 최두훈, 천강균, 신길호, 임진관, 김봉갑(이상 육계), 강석부, 조정래, 배영욱, 김상배, 김동성(이상 산란계)

감 사 : 조영수, 박성기

특정건축물(축사) 양성화 신고기간 연장

- 내년 3월말까지, 과태료를 인하는 정기국회에서 검토 -

본회에서 수차에 걸쳐 정부 및 국회, 각 정당에 건의한 축사과태료율 인하건의에 대해 건설부, 국회, 각 정당에서는 이미 본지에 수차 보도된 바와 같이 '검토중' 또는 '강구토록 촉구중'이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신고 기한인 9월말까지 구체적인 발표가 없자 본회는 지난 9월초 건설부장관과 국회 건설분과위원장, 민정당 정책위원회에 재차 「과태료율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반해 신고기한인 9월 30일을 앞두고 아무런 결과조치가 없어 전국의 축산인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대신해 조속한 시일내 재조정되어 전 양축가가 기한내 신고를 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거나 과태료율이 9월 이후로 지연될 경우 신고기간을 84년 3월말까지 연기조치 해 줄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관해 이미 일부 일간지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건설부에서는 본회에서 건의한대로 특정건축물 신고기간을 84년 3월 31까지 연장하고, 과태료를 인하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되어있다.

건설부의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 : 건의회신

1. 83. 9. 14 당부에 접수된 귀 건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건의요지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특정건축물의 양성화조치에 있어서 과태료인하(축산의 경우 현행과태료율의 10분의1) 및 신고기간의 연장건의

3. 회신내용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특정건축물의 신고기간은 동시행령을 개정하여 귀 건의와 같이 84. 3. 31까지 연장할 계획이며, 과태료 인하를 위한 동법의 개정도 현재 국회에서 추진중에 있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한편 민정당 민원부에서도「84년 3월 말까지 신고기간을 연장기로 국무회의에서 결의되었다」고 회신이 왔다.

감별분과위원회 개최

- 11월 11일 감별사시험 개최 -

제2회 감별분과위원회(위원장 정채인)가 지난 9월 3일 오후 본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년도 초생추 자웅감별사 자격시험 및 '83년도 감별사 경진대회, 감별사 해외파견, 감별분과위원회의 활성화방안 모색, 감별사 지위향상, 기타 안건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이날 결정된 사항중 감별사 자격시험 및 경진



△본회의회의실에서 열린 김별분과 위원회

대회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시 : 1983년 11월 11일(금)
2. 장소 : 본회 회의실
3. 참가신청마감 : 10월 15일(토) 오후 1시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회 지도조사부(전화 : (752) 3571~2)로 문의하기 바란다.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 난가 정상화 위한 대규모모임 갖기로 -

9월 채란분과위원회가 전남 광주지역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축산회관 지하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계분의 처리와 이용」에 관한 세미나에서 아세아향미 김정웅전무는 우리도 계분사료 60만톤 생산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이렇게 될 경우 의화를 절약하는 등 국가적으로도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외국에서는 발효·건조·포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되어 대대적으로 보급되고 있고 계분사료가 상품으로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 양계업제도 수분함량, 악취, 이물질 등의 문제점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우

리 양축가들이 이러한 문제점 해결에 좀 더 관심을 가질 경우 흑자경영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본회 황인옥 전무는 GP 센터 설치문제, 영양사 요리교육, 난가고시문제, 닭고기 가공·포장 세미나, 전국부화인 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 등에 대하여 설명하는 한편, 전국연간 계란소비량은 배합사료생산실적 기준으로 볼 때 농수산부 추정치(48억)를 훨씬 상회하는 60억개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100,000M/T \div 120g \div 30\text{일} \times 90\%$ (중계 10% 제외) $\rightarrow 25,000,000\text{수}$

$25,000,000\text{수} \times 65\% \times 365\text{일} \rightarrow 59\text{억개}$

마당병아리 $\rightarrow 1\text{억}8\text{천만개}$

본 안전토의에서는 난가고시 및 계란의 유통상 문제점들이 재차 지적되었다.

현재 일부 지방에서는 덤핑가격이 4~8원이 형성된 곳도 있다고 말하고 어떻게든 생산자들이 상호 보조를 맞춰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가장 물량이 많은 서울지역의 유통체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다른 지역까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면서 좀 더 조직적이고 긴밀한 정보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또한 협회의 공신력을 높



△채란분과위원회 회의 광경

여 어떠한 모임이든지 양제인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날 계란유통의 결의사항으로 정상화를 위해서 전국 각 계우회장 등(비회원도 포함) 지역별 책임자들을 한자리에 모이도록 하고, 특히 서울지역의 대군 양제업자들이 필참토록 적극 유도하여 대대적인 모임을 가질 것을 다짐했다.

양계관련 자료실 운영

—관련자료 수집중, 적극적인 참여요망—

본회는 양제업계와 관련업계에서 널리 이용될 수 있는 양계관련 자료실 운영에 앞서 축산 및 양계관련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양계산업안정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기초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며 수집된 자료는 선별하여 광범위하고 상세하게 편성하여 양제업자 및 관련업계에 개방해 조기에 양계산업안정화를 이루는데 기여하게 된다.

- 양계관련자료에 여분이 있을때는 본회에 1부를 기증해 주고
- 보관자료가 1부 뿐일때는 본회에서 복사 후 되돌려 주며
- 비매품이 아닌 것은 사전 협의후 본회에서 적정가격으로 구입하고
- 양계에 관련 귀중한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분은 본회로 연락해 주시면 직원이 출장 방문하여 상의할 예정이다.

브로일러계열화 세미나 개최

—정주, 서울, 대구에서—

본회는 미국사료곡물협회의 후원으로 지난

9월 23일 부터 27일까지 정주, 서울, 대구에서 각각 브로일러계열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미국 NBC(미국브로일러 협회)의 기술, 교육, 홍보, 조사담당 이사 W. P. Roenigk 씨를 초빙해 9월 23일(금)정주(내장산관광호텔), 26일(월)서울(미국 농업무역관), 27일(화)대구(축협회의실)등 3개 지역에서 브로일러 계열화의 올바른 이해촉구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추진방향모색 등 의견을 교환했다.

연인원 18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룬 이번 세미나는 강사의 주제발표와 질의 응답으로 진행되었는데 브로일러의 계열화의 관심도가 높아 강도높은 질문으로 열띤 분위기가 지속되었다.

강사로 초빙된 Mr. Roenigk은 「한국에도 브로일러산업 계열화의 여건이 성숙해 있다」고 전제하고 「모든 브로일러 관련산업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안정적인 육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계열화의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세한 발표내용 및 질의 응답내용은 본지에 별도 게재하였다.

닭 검정소 신축공사 입찰



△ 닭 검정소 공개입찰이 실시되고 있다

지난 8월 닭 경제능력검정소 부지조성공사 입찰을 실시한데 이어 9월 28일 오전 11시 축산회관 지하회의실에서는 검정소 신축공사 공개입찰이 실시되었다.

입찰실시 공고 결과 이날 5명이 응찰했는데 1차 입찰에서 남정규씨(안양)가 낙찰되었다.

한편 검정소부지 조성공사는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이며, 이 공사가 끝나는데로(10월 중순예정) 곧바로 신축공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는 12월 20일 준공될 예정이다.

이상윤희회장 출국

본회 이상윤희회장은 일본의 브로일러업계와 도계산업 및 인테그레이션시스템을 돌아보기 위해 오는 10월 7일 출국할 예정이다.

이회장은 도계장전립과 닭고기유통에 대한 집중시찰을 마치고 오는 10월 중순경 귀국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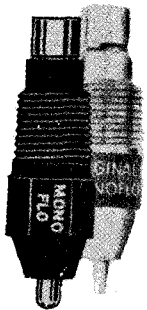
노영한국장 출국

본지 노영한편집국장은 지난 10월 1일 이스라엘, 나이지리아, 프랑스, 서독, 이태리 등지의 양계업계현황을 돌아보기 위해 출국했다.

노영한국장은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아프리카에의 양계산업 진출과 유럽지역의 양계, 사료, 도계, 양계산물유통현황을 파악하고 오는 10월 말에 귀국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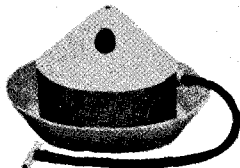
이번 여행은 김영철(평농축기 대표)씨와 동행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고장없는 급수기 MONOFLO®



케이저용 님플

프라스틱 파이프에 붙여 케이저 2 칸에 한개씩 설치하며 청소가 필요없다.



Mini80

초생추 육수에 최적, 칩가드내에 설치 가능

WM-5

국산보다 20% 크며 매달거나 바닥에 놓을 수 있는 양용. (별도 장치 불요)



과학축산시스템

서울·성동구 능동 246-10
☎ 445-0212, 1886